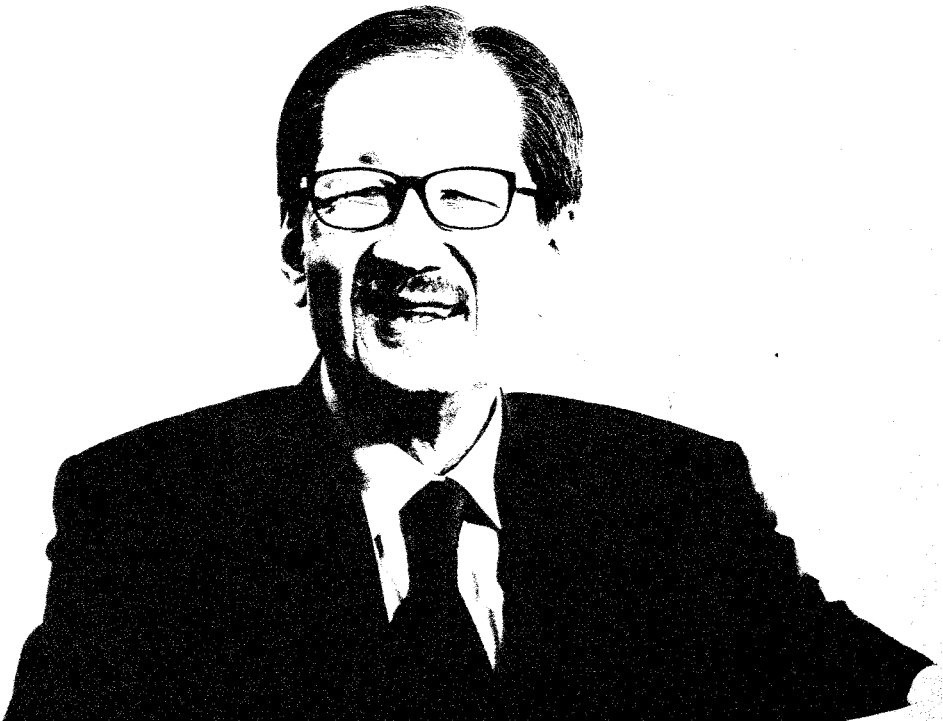


# 차례

머리말/홍성우 · 4

| 프롤로그 | 대담을 시작하면서 · 19



# 제1부\_1970년대 인권변론

## 1971년 사법과동과 변호사 개업

사법부 옥죄기와 법관들의 사표 • 35

##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권변론의 길로 들어서다

법정에 올려피진 애국가 • 53

## “인권변호사” 진용의 형성

이돈명, 조준희, 황인철, 홍성우의 결합 • 101

## 민중회복국민회의 결성과 이병린 변호사의 수난

“눈물도 얼을싸하여 손수건에 담노라” • 107

## 백낙청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

유신반대가 ‘정치활동’이라면 유신지지는... • 118

## “법정에 같이 섰던” 김지하사건

법정에 올려피진 ‘타는 목마름으로’ • 125

## 명동사건 (3·1민주구국선언사건)

재야민주세력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다 • 166

## 인권변론을 지원한 NCC와 선교자급사건

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 • 181

## 리영희 교수 필화사건

공소장과 똑같은 판결문 • 189

## 양성우 시인 필화사건

문학작품을 두고 사실에곡죄가 가당키나 하나 • 209

##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들

5·22사건과 ‘우리의 교육지표’ 사건 • 221

## 서울의대 간첩단사건

어머니의 구명활동 • 232

## 한국일보 기자노조사건

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내다 • 240

동아투위의 민권일지사건

언론자유와 강연장이 된 법정 • 256

동일방직 노조에 대한 탄압

"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" • 263

청계피복노조사건

장기표-이소선-청계노동자들의 연속 재판 • 273

남조선민족해방전선(남민전)사건

유신말기의 극단처방, 그러나... • 279

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

독서씨를 만들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• 294

오원춘사건

기차칸에서 변호사들이 통곡한 사연은? • 308

변호사 홍성우 법률사무소  
서울·중구 서소문동 55의4 (백재빌딩502호)  
28 - 6 8 6 8

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 
 가진 것이 없었고, 가장 귀찮은 것을 알고, 가진  
 것이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 
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 사위에 아끼려고  
 있는 것이다. 오로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 
 그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 
 통하여 외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~~아름다~~  
~~추진할~~ 오늘날 사회의 그들이 가진 선진사회의  
 리얼리티 된 이들의 수반은, ~~열악한~~ 가난하리  
 짐작하고 추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속에서 결의  
 기억할 것이다. ~~심은~~

1983. 7.

## 제2부\_1980년대 인권변론

1980년 변호사 휴업과 김수환 추기경의 은고 • 331

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

부산·대구 오가며 피고인을 살려내기 • 348

재일동포 유학생에 대한 간첩조작사건

윤정현, 조일지 사건 • 370

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

유죄와 무죄를 오간 7차의 평통재판 • 397

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

항소이유서를 그토록 공들여 쓴 이유는? • 424

여성에 대한 정년차별 시정 소송

김영희사건, 여성정년의 장벽을 깨다 • 440

서울대 “학원푸락치” 사건

온순한 인간들을 열렬한 투사로 만드는 시대 • 445

민주회추진위원회(민추위)사건

양심범의 소신을 지켜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 • 457

삼민투사건

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주류 • 486

서울 미문화원 접거사건

정치변론과 인권변론, 재판거부의 차이 • 495

김근태에 대한 고문과 재판

고문의 고통과 증거를 외면한 검찰과 법원 • 511

정법회의 결성

장년층과 청년층 변호사의 결합 • 534

영천기름집 살인사건, 무죄판결 받아내다 • 542

## 대우자동차사건

“위장취업”한 대학생들,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• 555

## 대우어패럴 사건 혹은 구로연대파업

20명의 변호사들, 연대변호의 효시를 열다 • 560

## 휴어차일드 회사의 노동운동가 해고사건 • 567

##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

인권변론 역량의 최대치를 구현 • 570

## 민중교육사건

교사들 법정에서 서다 • 593

## 녹두출판사사건

사회주의권 책자의 번역은 이적인가 • 602

## 이돈명 변호사, ‘범인은닉’사건으로 구속수감

‘민중이 당하는 수난에 변호사만 예외일 수 없다’ • 615

## 서울노동운동연합(서노련)사건

김문수 · 심상정 · 유시민의 인연 • 636

## 재현의회사건 및 반제동맹사건

혁명론의 분출과 운동권의 분화 • 645

## 유성환 의원, “국시” 발언으로 옥살이

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한계는 어디인가 • 658

## 민중미학연구소(민미연)사건

소장 인문학자들을 족쇄 채우다 • 667

## 보도지침사건

“불낸 자는 놔두고 119 신고한 자를 잡아간다니” • 67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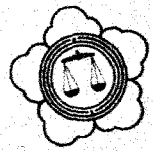
## 남북접촉 시도와 전민련사건

공개적인 남북접촉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압하다 • 689

## 민변의 결성과 조영래 추모모임

민중의 삶과 연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• 696

# 人權報告書



大韓辯護士協會

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(사노맹)사건  
변론의 바톤 넘겨줄 때 • 705

전두환·노태우를 내란죄로 고소하다  
공소시효에 대한 해석의 전기를 마련 • 715

| 에필로그 | 마치면서 • 731

| 발문 | 인권변론의 전설을 기록화하기/한인섭 • 744

인권변론연보 • 751

인명색인 • 762

